
북유럽 복지사회, 베트남,
중남미 국가의 행복 구성(construction)

서울대학교 인류학과
채수홍

3년 동안 진행된 행복의 비교 연구

- 1차년도 (노르웨이, 덴마크)
: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, 경제 수준 평균 이상
- 2차년도
: 행복 수준 평균 이상, 경제 수준 평균 이하(멕시코, 코스타리카)
- 3차년도
: 행복 수준 평균 이하, 경제 수준 평균 이하 (베트남)

비교 분석의 초점

- 물질적(경제적), 제도적, 정치적 현실과 이에 대한 중산층의 평가
- 행복 담론의 사회문화적 구성의 특성
- 행복에 관한 중산층의 지배적 담론과 세대 별 차이
: 중장년 세대 vs. 청년 세대

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례

- 사회-민주주의 정향의 복지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
- 높은 경제 수준, 무상 의료·교육 중심의 잘 정비된 제도
: 생계 어려움 없는 사회 vs. 중산층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
- 청년 세대
: 주택 보유 관심과 대출, 높은 세금 부담, 단순한 소비 생활
- 중장년 세대
: 높은 세금 부담, 높은 소비 물가, 풍족하지 않은 은퇴 자금
- 경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
: 풍족하지 않은 중산층, 빈부격차 심화 인식

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례

- 중산층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적음
 - ← “모두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는” 사회
 - ← “과시 소비 없는 부유층”에 대한 믿음
(적은 상속세, 하녀 없는 부유층)
- 복지국가 체제의 정당성과 제도의 합리성에 동의
 - ← “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”
- 소박한 가족주의와 별장(hytte)의 문화적 의미

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례

-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강한 만족감
- 역사적 산물로서 확립된 제도에 대한 자부심
-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집착
 - ⇒ 물질적 풍요보다 이상적으로 구성된 정의로움을 통해 행복감 느끼기
 - ⇒ 환경, 평등, 자유, 평화 등에 대한 강한 정치적 욕구

중남미 두 국가의 사례

- 낮은 경제 수준, 치안·의료·교육 제도에 문제 많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
- 중산층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
- 일상화된 마약과 범죄, 공권력 부패, 질 낮은 공공서비스
-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
 - ⇒ 고통 경험에 대한 생생한 진술
-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차이
 - : 500만 소국 코스타리카의 정치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
 - : 사회-민주주의적 지향과 자유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자부심

중남미 두 국가의 사례

- 티코(Tico)의 푸라 비다
: 코스타리카인의 '푸라 비다(Prua Vida, 순수한 삶)'에 대한 믿음
-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 천국
- 과도한 욕망의 절제와 주어진 여건에 대한 만족
 - 삶에 "순수"하게 대응하기
 - ⇒ 근대적 개인주의와 초월적 세계관을 통한 행복의 구성
 - ⇒ 행복의 주관적 만족도 세계 최상위 수준

중남미 두 국가의 사례

- 멕시코인 특유의 내세관
 - : 일상적 축제와 망자(亡者)의 날 축제
 - : 초월적 세계관과 즐기는 삶의 추구
 - : 초현실적 세계관을 통한 삶의 희화화와 해학
- 종교적 세계관(특히 내세관)을 통한 삶의 긍정적 구성

중남미 두 국가의 사례

- 코스타리카인의 내면의 평정심
 -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자유로움 추구
- 멕시코인의 초월적 종교관의 내면화
 - 어려운 현실을 축제, 해학으로 완화하고 벗어나기
 - ⇒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
 - ⇒ 객관적 현실, 사회문화적 구성, 개인의 내면화 사이의 간극 존재

베트남 사례

- 행복이 베트남 사회에서 익숙한 개념인가? (cf. 북유럽, 중남미)
 - : 행복(hanh phuc)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사회문화적 관심사였나?
(복, 가족의 평안함, 입신양명 등 집단 속의 개인
vs. 근대적 주제로서 개인의 행복)
 - : 행복을 설명하는 문화적 기제와 지배적 담론 부재
(cf. 북유럽의 사회복지와 정의, 중남미의 종교와 가족)
- 최근에 대중화된 행복 담론
 - ← 서구 헤게모니 하에 당-정부가 행복을 구성하려고 노력

베트남 사례

- 중산층 엘리트의 행복관 분석
 - :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세대별 차이
 - : 노년 세대의 정치경제 여건에 대한 관심
 - vs. 청년 세대의 여유로운 일상에 대한 관심
 - : 노년 세대의 집단적 차원과 분리된 개인 차원의 행복에 대한 신뢰 적음
 - vs. 집단적 차원과 독립된 개인 차원의 행복 추구 신뢰
 - : 베트남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공식 담론
 - vs. 못 떠나는 현실적 제약
- 행복을 설명할 때 역사적 기억을 참조하여 비교
 - 주어진 현실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기
- 가족주의,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
- 정치경제적 현실과 구성된 행복의 차이의 심화

합의

- 행복은 근대적을 만들어진 문화 상대적 개념
- 물질적 조건의 직접적 반영이 아닌 행복
-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의 중요성
 - ⇒ 문화적 전통에 맞는 행복 개념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
 - ⇒ 행복을 구성하려는 노력의 필요성
 - ⇒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 사이의 간극 줄이기의 필요성

Thank you

Cam on nhieu